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식

“따뜻하고 찰진밥 먹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낼게요”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우양재단 지원 ‘밥솥은 사랑을 싣고’ 밥솥 전달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자월스님)은 우양재단(이사장 최종문)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밥솥은 사랑을 싣고’ 사업에 선정되었다.

‘밥솥은 사랑을 싣고’ 사업은 밥솥 노후, 없는 가정 등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전기밥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노후된 밥솥, 냄비 밥솥을 사용하는 10명의 어르신이 선정되어 전달하였다.

밥솥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냄비로 밥을 해먹었는데, 태울 때가 더 많아서 밥을 해먹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기밥솥을 받아서 따뜻하고 찰진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우양재단의 도움으로 10명의 어르신께 밥솥을 전달했다.

희망로타리클럽·다문화나눔봉사단과 주거환경 개선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홍천희망로타리클럽, 다문화나눔봉사단 지원으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보일러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저소득 홀몸어르신 보일러 교체 온기 전달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홍천희망로타리클럽(회장 정재욱)과 연계하여 홍천 다문화나눔봉사단의 도움으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보일러 교체를 진행하고, 식료품을 지원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인 민○○어르신(남, 74세)은 지병으로 올해에 2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인척이 없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를

이용하려 했으나 고장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담당 생활지원사가 희망로타리클럽에 도움을 청했고, 희망로타리클럽 정재욱회장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인 민○○어르신(남, 74세)은 “이번 겨울은 유독 춥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CONTENTS



02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3 - 경로당 탐방시리즈

04 - 스포츠
05 - 4차 산업혁명 시대
06 - 기자칼럼

07 - 우리 마을
08 - 인생칼럼
건강정보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

126년 전 동학농민군 함성 다시 울려 퍼졌다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가 지난 10월 23일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에서 열렸다.

매년 추모제 개최 전사자 800여명 희생 기려 위령제, 전투 재연 퍼모먼스, 음악회 등 다채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

홍천문화원은 제126주기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혁명군 전적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홍천문화원 주관으로 김인숙 문화원 사무국장의 1부 행사 진행과 동학농민혁명군서석면추모사업회 권소영 사무국장의 2부 추모음악회 진행으로 이어졌다. 또한 식후 행사로는 극단 DO MO(대표 황운기)의 퍼포먼스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함성 상황을 재연하였다.

추념식은 천도교 의식절차인 '청수봉전'을 박미옥 문화원 여성회장의 봉전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허필홍 군수의 헌화와 분향 순으로 박주선 문화원장, 송범두 천도교교령, 최낙원 유족대표, 심형기 추모사업회장, 신도현 도의원, 박영록 부의장, 나기호 군의원, 이형주 노인회장, 이희덕 자유총연맹 홍천지회장, 김창묵 동창만세기념사업회장 등 각 기관·사회 단체장의 헌화·분향이 이어졌다.이어서 박주선 원장의 경과보고와 허필홍 군수의 추념사, 송범두 천도교교령의 추념사 등의 식순으로 추모사업 관계자, 주민,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추념식이 거행되었다.

할아버지! 126년 전 그날에도 가을 햇살이 오늘같이 포근하게 느껴졌을까요?

자작고개 회포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가수 주현

미의 '자작고개'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2부의 추모음악회가 시작되었다. 현재은 외 5명의 아이들이 들려주는 뮤지컬 모차르트 중 '황금별'을 시작으로 카운터테너 루이스초이, 소리꾼 전태원, 바리톤 정진원 등 대한민국 대표 음악인들의 연주와 노래로 무르익었다.

'70님은 손자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언덕을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를 온 어깨에 지고 가신 할아버지의 외로운 싸움... 설움마저도 잊고 계셨나요? 우리 당신의 삶의 무게와 외로움 그리고 설움을 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기대어서...'

잔잔한 울림으로 시작된 추모사업회 권소영 사무국장의 나레이션에 이어, 녹두꽃 OST 중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피날레로 다함께 부르는 모습에 죽음도 두려워 않고 싸우다가 전사한 동학농민들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이 되어 민족의 애환으로 살아나는 듯했다.

자작고개에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과 처절함

식후행사로 이어진 극단 도모의 퍼포먼스에서는 그때의 함성과 처절함이 그대로 재연되어 자작고개 전투의 규모를 가늠해보는 장엄함속에 영화 한편을 보는 듯한 공연이었다.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강원도 농민군은 크게 정선, 평창, 영월,

홍천풍암리동학혁명군전적지

강원도기념물 제25호 (1977.11.28. 지정)

▶ 면적: 1,229㎡

▶ 문의: 033-430-2424

▶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 11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세력과 1894년 10월 21일 홍천 대접주 차기석이 인솔하는 1천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내촌면 물결리에 집결해 동창의 무기와 식량을 접수한 후 소각하고, 홍천관아를 습격한 후 화촌면 장야촌에서 지평현감이자 민보군 대장인 맹영재가 거느린 관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동학군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서석면으로 퇴각, 10월 22일 풍암리에 진을 치고 3일간 맹영재의 관군과 민보군에 대적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였으나 11월24일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의 공격에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자작고개에서 동학군 800여명이 전사하며 패하였다.(갑오살기)

현재 풍암리 주민들 중 이 전투 날짜(음력 10월 22일)에 기제를 지내는 집이 30여 호에 이른다 하니, 당시 마을의 참담함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서 기일인 10월 23일을 추념일로 정해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홍천문화원 주관으로 해마다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다. 폭정에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동학군의 처절한 심정과 순수한 뜻에 대한 재조명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동학혁명의 의의를 되새겨야 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인 것 같다.

추념식이 끝난 자작고개 허허로운 벌판에는 갈 곳을 잃은 낙엽들만이 그날의 함성으로 아우성치며 나뉘고 있었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동학농민혁명군 숭고한 정신 계승 노인들이 앞장”



◇서석분회 임원진(왼쪽부터 심형기 풍암1리 노인회장, 황병근 사무장, 사영한 회장, 김진택 부회장, 홍일점 이월선 부회장, 김희중 서석뉴스 유튜버)



◇동학농민군 최대 격전지 자작고개에서 자리를 함께 한 서석면분회 임원진.

동학농민혁명군 기념관 조기 건립 명소 부상 소망 노인회 자료수집 참여 흥천서 첫 ‘면지’ 발간 보람

서석면은 교통여건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에도 흥천군 관내 10개 읍면 중 흥천읍 다음으로 발전이 앞서고 생활수준이 높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영한 대한노인회 서석면 분회장(40년생)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느낀다.

사무실에 모인 이월선(48년생), 김진택 부회장(45년생), 황병근 사무장(36년생), 김희석(53년생) 서석뉴스 유튜버 등은 예전에는 장작불에 쌀밥 먹는 고장이 서석이라고 했으며 2018년에는 흥천군 관내에서는 최초로 면지도 발간했다고 한다.

면지 발간에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약 3년여의 조사, 자료수집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서석면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가 16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강원도 산골 일개 면에 박사 학위취득자가 16명이라는 것도 나름 서석면이 잘사는 고장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흥천군의 초대 군의원을 역임한 사영한 분회장은 여기에 더해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지가 서석면 소재지인 풍암리에 위치에 있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혁명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해 본다면 조선왕조가 접어들면서 즉위하는 왕들의 나이가 순조가 11살, 헌종 8세, 철종 18세, 고종 12세로 나이가 어리고 무능한 왕들이 즉위하여 외척과 권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사리사욕과 당파 이기주의로 권력투쟁이 날로 심하였다.

여기에 국가기강이 바닥까지 드러나 매관매직은 빈번하였고 탐관오리들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물론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등 백성들

의 피해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해 있었다.

밖으로는 서구열강과 제국주의의 통상개화 요구로 조선사회 자체가 극심한 혼돈, 혼란에 빠져 위기에 처해 있었다.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악한 정치 등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동학 농민운동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고 결연히 일어난 혁명이었지만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끝난 19세기 미완의 민중 혁명이었다.

동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난 혁명이었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학창시절에 혁명이 아닌 동학난으로 배운 기억이 있으니 친일성향 학자와 위정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일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동학 혁명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100여 년을 앞당겼을 것이다.

당시 동학혁명군의 2차 봉기의 마지막 전투가 이곳 서석면 풍암리에서 있었던 것인데 관군은 조직적 훈련과 신식무기를 지닌 반면 동학군은 농사를 짓던 순수한 민초들로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농기구와 나무창 등으로 대적하니 결과는 뻔했지만 이 고장의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마지막 피의 항쟁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들었으면 피가 자작자작 고였다 하여 이 마지막 전투장소를 자작고개라 칭하고 있겠는가?

당시 이 전투의 희생자를 800여 명으로 추정한다지만 1976년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닦던 지역주민들이 자작고개에서 숯한 유골을 발견하였다고 하며, 서석 분회 부회장이며 생곡2리 참아름다운교회 목회자인 김진택 어르신의 증언에 의하면 어렸을적 굴러다니는 해골로 축구를 하였다고 하니 가히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석에서는 매년 10월 22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지내고 있다. 취재하는 날 자리를 함께한 사영한 분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석노인회는 물론 서석면의 최대 숙원사업은 동학혁명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다수가 동학하면 호남을 생각하는데 강원도는 동학의 제2의 고향이자 동학혁명의 중심지이었다. 그중에서도 흥천군 서석면이 중심에 있었음을 잊을 수 있다.

전라도 고부에 동학혁명 기념관이 건립되어 사료 등이 잘 보존되고 후세들에게 참교육장으로 이용되어 있어 부럽다고 하면서, 풍암리 마지막 격전지에도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학혁명과 관련된 사료들이 없어지기 전에, 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타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건립되어야 하는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현재 흥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가 강원도 기념물 제22호임을 감안할 때 이곳에 기념관을 건립해 명실상부한 강원도와 흥천군의 자랑거리, 학습 장소 겸 관광지로, 강원 흥천의 명소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자도 기대를 해본다.

우리 흥천군 관내에 자발적으로 자기고장을 홍보하는 유튜버가 있는 이곳 서석, 김희중 유튜버의 활약이 동학혁명 기념관 건립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기사를 마감한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하며 대회 성황리 개최



◇11월 3일부터 9일간 홍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유튜브 중계 모습.

무관중 따라 전 경기 실시간 유튜브 중계 호평 스포츠 인재 육성위해 훌륭한 지도자 확보 필요

제31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열렸다. 홍천국민체육센터,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회는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참신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전남 광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소된 이후 강원도 홍천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에 따라 11월 개최되었다.

홍천군체육회는 무관중 대회 진행에도 불구하고 선수단과 심판 및 임원진 등 소수 참여인원에 대한 철저한 발열체크와 유증상자 대기소를 운영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CBS배 배구대회는 1990년 서울 한양대체육관에서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됐다. 그동안 CBS배를 통해 김연경, 박철우, 문성민 등 한국의 배구스타가 탄생했다.

제31회 대회에서는 함안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전을 조1위로 통과하고, 결승전 역시 인천 인하사대부중학교를 2:0으로 꺾으며, 지난 6월 춘계 전국 남녀 배구연맹전에 이어 또 우승을 하며 2관왕을 달성하였다.

홍천군은 스포츠 관련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훌륭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인재 육성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만큼 홍천군의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시설 투자와 더불어 탄탄한 감독과 코치진을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너 어디까지 왔니?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꿈의 자동차는 주로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전격 Z 작전'에서는 주인공이 키트(KITT)라는 멋진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고, 2002년에 개봉한 '마이네리티 리포트'에서는 누명을 쓴 주인공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장거리 운전을 한다거나,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 차량들로 정체된 도심에서 운전할 때 우리들은 이런 영화에서 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꿈꾸지 않을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수준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자.

어떤 동작 과정으로 움직이나

첫 번째 인지 단계, 이는 사람의 눈에 대응된다.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나 스캐너가 중심으로 초음파 센서는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스캐너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 인지한다. 고성능 카메라와 전파와 광선을 쏘는 레이더(Radar) 및 라이더(Lidar)가 필요하다.

두 번째 판단 단계, 이는 뇌의 상황판단과 유사하다. 센서로부터 받아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기계가 생각을 하고 운전 방향을 세워야하므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인공지능이 탑재된다. 인공지능 엔진은 대용량 주행 데이터를 경험하고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사물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그 움직임을 구분한다. 마지막 제어 단계, 이는 뇌가 제어하는 신체와 같다. 인공지능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차량 속력과 방향을 조절하고 운전자 알림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때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신 및 호환성이 중요해진다. 세계 각국에서 속도가 빠른 5G 통신 네트워크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에도 5G 통신 네트워크와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핵심인데 이들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현의 6단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분류에 따르면, 0단계는 자율주행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모든 판단을 하는 상태다.

1단계는 운전자에게 감속, 가속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2단계는 1단계 수준에서 방향 조절이 추가된다.

3단계는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게서 컴퓨터로 바뀌며 주변 환경을 파악해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단



계이고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진다.

4단계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까운 단계다.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시가지 도로 주행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치 않는 단계이다. 현재 각국이 이 4단계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 중이다.

5단계는 어떤 환경에서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이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외에 구글 같은 IT 기업도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4, 5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없는 상황이며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완벽히 상용화되지 않았다. BMW사나 구글은 2021년에 레벨 5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점 VS 나쁜 점

우선 떠올리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일단 사고가 줄어 들 것이다. 즉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점이겠다. 모든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주로 운전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면 보다 정밀한 컴퓨터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 혼잡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을 때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다. 에너지 손실을 줄여줄 수 있고, 노약자들에게도 이동의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운전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차안

에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책 읽기, TV보기, 대화 나누기 등. 그렇다면 나쁜 점은 무엇일까. 도로의 대부분 차량이 무인자동차이고 이들이 모두 자율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법적 문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자율 주행차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해커들에 의한 해킹의 위험도 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율주행차는 ICT 전반의 기술이 자동차에 도입되므로 다양한 기간산업을 포함한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자율주행을 돕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의 국가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기업 외에도 IT 기업, 운송 기업, 컴퓨터 제조 기업, 통신 기업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기아차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은 2030년쯤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독일의 BMW, 미국의 포드나 구글은 2021년에 레벨 5의 자율차를 선보일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완전한 상용화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화뉴스(2020. 11. 6)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무궁화 도자도형 작가로 유명... 한서대상 수상



◇최충열·장연자 부부의 전시작품들.

자연 생성, 인간 삶의 현상 담은 작품 30점 전시 ‘대나무 상형 마디 쌓기’ 작가 부부만 시도 독특

2020 흔적 Traces의 주제로 제13회 최충열, 장연자 부부 조형도자전이 홍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가 되었다.

오랜만에 전시실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리는 조형도자전을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 독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 흔적의 작가 노트를 소개해 본다.

노을이 진다.

땅거미가 어둑해지고 멀리 초가집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에야 밥 먹어라” 울 엄마도 날 부른다. 또래 친구들 하나둘 입이 이만큼 나와 그냥 끌려간다. 나도 간다. 내 고향 담양 죽세품 마을 그때 그 시절은 온데간데없다. 이젠 백발이 되었건만 모든 건 추억 속에 가끔씩 스쳐가고 남은 것은 흔적뿐이다.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상형 형식의 “대나무 상형 마디 쌓기”는 우리 부부 작가만이 하는 작업이다. 작품 하나 하나는 수천 개의 마디로 성형되고 두 번 세 번의 소성 단계를 거쳐 1,300도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완성시킨다.

이러한 탄생과 사라지는 흔적을 메멘토모리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중세 성전을 거쳐 에펠탑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 지붕까지 그 흔적을 찾아본다.

작품 구상

작가는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가 아닌 관람자들이 무엇을 가슴에 담아 갈 것인가? 우리 삶은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본다. 본 주제의 흔적은 무소유, 무상, 허구를 이야기하면서 탐욕에 기초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작품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예술은 일반인들이 그리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작품들을 우리가 가까이 보고 느끼는 공간의 장을 마련 스스로 예술을 보는 눈높이가 한 단계 높아지며 미술계의 “-ism” 즉 미술사조 이해와 문화예술 불모지를 해소하고자 한다.

흙마디라는 작은 유니트로 시작하여 마디 하나 하나를 프로세스를 거쳐 도자의 혁신을 가져온 해체의 텍스트를 부여하게 된다. 관념의 틀을 벗어나 매체의 해체는 각각의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나타난다.

작가의 정체성은 모든 작가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식화되어있는 언어적 유희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 속에 의미와 개념의 차이를 작가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 작품 속 의미의 자율성을 가진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 속에 의미와 개념의 차이를 작가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 작품속 의미와 자율성을 가진다.

본 작품은 이성과 감성을 확장 감각적 표현으로

기존 관념의 해체적 관념을 강하게 보여준다. 작가와 관람자는 결국 작가의 주관적 의도와 달리 스스로 해석과 의미 창출은 우리 도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밑거름이다.

작가의 “대나무 성형 마디 쌓기”는 기존 도자의 한계(생활도자 및 항아리)를 벗어나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성형 기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전시다. 기존 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와 기술을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기존에 인식되어 있는 관념의 사고 즉 “도자기는 항상 이런 거야”가 아닌 “어, 이거 뭐야! 새롭네” 무엇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관람자는 각각의 작품마다 생성, 진화 그리고 마지막 흔적을 보면서 흙이 가진 한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흔적의 전시 공간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 진화, 인간의 삶의 현상 등을 “흔적”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작품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약 30여 점의 작품 구성은 회화와 조형 도자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작가의 노트에서 보듯이 조형도자의 구성과 작품 완성도의 단계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제 13회 최충열, 장연자 부부의 조형도자전을 관람하면서 섬세함과 정교함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홍천의 자랑인 무궁화 홍보에도 앞장서 41년간 무궁화 도자도형 작가로 유명하다.

이번 한서 대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과 전시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형도자의 전개와 문화의 향유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우리 마을

홍천군 남면

수도권과 접근성 용이 귀농귀촌 최적지 부상



◇ '기차타고 서울 가는 날까지'라는 슬로건의 현수막 사진.



◇해밀학교 전경과 운동장 모습.

면민 단합 용문~홍천 철도 유치 총력전 펼쳐 가수 인순이 '해밀학교' 기숙사 이전 신축 공사

홍천군 남면은 국도 44호선과 지방도494호선이 지나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곳이다. 남면 면사무소에서 동서울까지는 1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양덕원 금물산에서 발원한 물은 남노일과 북노일을 거쳐 홍천강으로 흐른다.

남면 면사무소 부근에는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 부지에는 군부대와 농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 6,392명(남 3,101명, 여 3,291명) 법정 11개리, 행정21개리 84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홍천군에 철도가 없는 것을 한탄한 홍천 지역 국회의원과 홍천 군수는 함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여 철도 유치 활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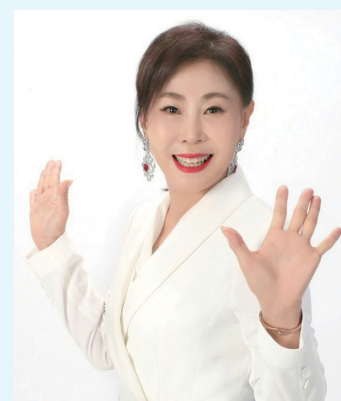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 국회의원과 군수는 용문·홍천 간 철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용문협의회장 장병웅, 홍천남면협의회장 고종준은 '기차타고 서울 가는 날까지'라는 슬로건의 현수막을 걸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인기가수 인순이는 2010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홍천군 남면에 대안학교를 개교하였다. 2013년 4월 '해밀학교'로 교명을 개정하였는데 해밀이라는 뜻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는 다양한 이주 배경과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학교 공동체로 세계적인 마인드와 창조적인 도전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이 학교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5만 5,498명이다. 과거 피부색, 언어, 가정형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진학률이 낮았지만 해밀학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걱정 없이 배움의 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홍천군 남면 명동길 35번 29-10번지에 소재한 기숙사를 남면 남노일로 720-8번지에 이전하



◇가수 이애란씨.

'가기 싫은 곳은 못 간다고 전하러' 등 인간이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것을 가사에 담아 인간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에 트로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애란은 가수 활동을 통해 고향인 홍천을 홍보하는 등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군 남면은 귀농귀촌, 행복한 노후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철도망 또한 들어서게 된다면 홍천의 발전은 물론 남면이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다. 충효를 중시했고 예의와 덕을 으뜸으로 여겼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기 보다는 앞을 양보하고 뒤에서며, 높으데 있더라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줌으로서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이 절로 샘솟았다.

배풀고자 해도 받는 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 받아 챙기지 아니하고 한두 번은 사양했으며 배푸는

사람 역시 사양을 해도 삼세번까지는 재청하였으니, 그야말로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주고받는 모든 생활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여 인간관계속에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체면을 유지하며 명예를 지켜왔다. 이는 서로의 소통과 이해관계에 청탁과 비리가 아닌가 생각할 여유와

부정정탁이나 뇌물의 거래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양심은 사람으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중심이 있기에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쪽팔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창피하다.”는 체면이 깎이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한 일로 부끄럽다.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 차마 창문을 활짝 열고 내다볼 수도 없으니 창문을 피해서서 밖을 살짝 훑쳐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창피하다.” 즉 창문을 피하다. “창피(窓避)하다.”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창피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더구나 사회에 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이 더하다. 그들은 양심에 가책도 없는지 좋지 못한 일에 이름을 날리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얼굴을 떳떳이 내밀고 자기 잘났다고 설쳐대는 세상이다.

창 피할 줄도 모르고...

“창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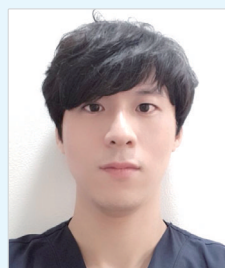
임기응변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자는 아무리 급해도 경박하게 나대지 않으며,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사양함으로써 상대가 후회할 일을 막아주고, 마음에도 없는데 어쩔 수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 또한 가려지게 되고, 진정한 정을 표하게 함으로써 요즘에 흔히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양심은 나를 떳떳하지 못하다 하니 가책을 받은 나는 나를 숨기려 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창피하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수치스럽다.” 또

건강정보



김홍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또한 따뜻한 실내에서 외부로 나가게 될 때 추위로 인한 몸의 둔화가 미끄러운 길에서 낙상 사고 등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독감, 감기, 천식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으로는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갑작스런 사고,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졸중 등의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과 휴식, 영양섭취 등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외에 더욱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해 신

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호두와 찹쌀, 단호박, 무, 인삼, 꿀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70%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도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하여서 건강관리의 큰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당한 영양분 섭취, 위생관리는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건강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건강관리를 요구 하게 됩니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외부활동이 줄고 둔해지는데, 줄어든 신체의 활동은 몸의 근육과 신경들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난방을 위해 꼼꼼하게 닫아둔 실내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차게 되고,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더욱 쉽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됩니다.

꿀팁1
1~2시간마다
실내공기
환기하기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집기미와 냄새와 더불어 실내공기질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꿀팁2
하루 1.5L 이상
수분 섭취하기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을 방어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또, 수분 부족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3
외출 후
손 씻기

감기 바이러스 등은 손으로부터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 후나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꿀팁4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로 평소와 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실내에서 활동하는 겨울철에는 전자기기의 사용과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해야 합니다.